

조사자료

2002 - 009

ASEAN 시멘트 산업의
최근 현황 및 전망

2002. 3

한국양회공업협회

ASEAN 주요국 시멘트 산업의 최근 현황 및 전망

- 말레이시아, 태국, 인도네시아, 필리핀 4개국을 중심으로 -

1. 개 관

□ 1997년의 아시아 경제위기는 사실상 극복되었으나 시멘트 산업은 공급과잉 및 저수요로 인해 가동률을 제고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

○ ASEAN의 시멘트 제조업체들은 최근 지속적으로 매우 낮은 수요를 경험하고 있음

- 특히 태국은 그 정도가 심하여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의 여파로 잇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충격을 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2002년 전망 또한 불투명함

- 2001년 동안, 전체 ASEAN 생산능력은 177백만톤으로 기록되었으나 생산량은 전체 111백만톤에 불과하였고 국내수요는 단지 85백만톤으로 지역적 가동률은 63%에 달함

- 시멘트 및 크링카는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 수출되며, 지난해 수출은 26백만톤에 달했으나 생산능력 대비 저가동률은 적어도 2년 동안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

- 2000년, 통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가장 큰 시멘트 소비지로서 1인당 소비량이 506kg에 달하며 인도네시아는 가장 적은 111kg을 기록함

-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멘트 생산국이며 베트남은 최근 몇 년동안 국내시멘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멘트 수입을 금지해 왔음
-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에서의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AFCM 회원국들은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할 뿐만이 아니라 방글라데시 및 인도대륙 내의 다른 곳들과 같은 다른 시장들을 조사하고 개발해야 할 것임
 - 시멘트 산업을 더욱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한 다른 노력들은 도로건설 및 주택건설에서 시멘트 사용을 증진시키는 것을 포함
 - AFCM은 회원국간의 지역내 덤핑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위원회를 창설하였으며 필리핀에서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덤핑문제를 비추어 생각해 볼 때 매우 시의 적절함

2. 말레이시아

□ 경제전반

- 2000년 말레이시아의 GDP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 중의 하나인 8.5%의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음
 -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주요 수출품목인 IT산업에서의 전 세계적인 수요급락으로 고통을 경험해 왔음
 - 말레이시아는 2001년 GDP는 전년대비 3% 정도의 하락세를 보였음

- 장기적 관점에서 말레이시아는 2000~2010년 동안 년평균 실질 GDP 성장률을 7.5%로 목표하고 있으며 아울러 2020년까지는 완전한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함
 - 계획된 년평균 7.5%의 실질 GDP성장률의 거의 반 혹은 3.2% 성장률은 더 높은 생산성에 의해 지속될 것이며 과거의 성장 패턴에서 벗어난 급속한 출발을 의미함
 - 말레이시아의 경제는 2002년 하반기나 돼서야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
 - 2001년 3사분기 및 4사분기에 단지 0.4%정도의 신통치 않은 GDP성장률을 기록했음
- 미국경제의 조기 부활 조짐이 긍정적 전망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좀더 빠른 경제성장의 회복, 가처분 소득의 강력한 증가 및 소비지출의 증가로 인해 말레이시아는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임

□ 생 산

- 시멘트 시장은 소수독점 시장으로 5개의 대그룹-Malayan Cement Bhd, Cement Industries of Malaysia Bhd(Cima), Tasek Corp, Gopeng Bhd and YTL Cement으로 이루어져 있음
 - 수많은 더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 있긴 있지만 선도적인 4개 시멘트 그룹의 시장점유율은 89%에 달함

- 비록 Malayan Cement가 3개의 일관공장 및 1개의 분쇄공장을 갖고 있는 시장의 선도기업이더라도 2001년에 경쟁업체들과 비교해 볼 때 그다지 희망적인 업적을 보여주지 못함
 - 현재 연간생산량은 크링카 7.9백만톤, 시멘트 12.8백만톤이며 이는 말레이시아 전체 생산능력의 거의 반을 차지하는 물량임
 - 2001년의 순이익은 16억 링기트였으며 이는 기대 이하의 결과로서 부분적으로 싱가포르 운영체인 Rawang과 Kanthan공장에서의 높은 유지비와 수리비에 따른 손실에 기인함
- 국가 전체로 보면 2001년의 크링카 생산능력은 16.2백만톤이며 시멘트 생산능력은 26.4백만톤에 달했음
 - 2001년 시멘트 총 생산량은 14.6백만톤을 기록했으며 크링카는 12.0백만톤의 실적을 보였음
 - 말레이시아 시멘트 생산은 건설산업의 호조로 시멘트 수요 증가가 기대되므로 2002년 시멘트 산업 전망은 전년보다 더 밝을 전망이지만 아직까지 공급과잉을 겪는 상황은 여전히 주된 장애물임

□ 소 비

- 많은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의 시멘트 수요 또한 생산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2001년, 수요는 크링카 생산능력의 단지 74%에 머물렀고 전체 시멘트 생산능력의 45% 수준에 달했음
 - 실질 소비량은 11.8백만톤을 기록했음

- 건설부문은 2.8%성장한 2001년과 비교시 2002년에는 3.5%의 강건한 신장세가 기대되며 이러한 성장과 관련하여 소비는 10%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- 그러나 산업 관찰자(전문가)들은 시장에 밀착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수요에서의 10% 증가하는 추정치는 아마도 5~7%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음
 - 기존 예상치는 12%의 성장률이었으나 2001년에 2%로 성장의 한계를 보여주었기 때문임
- 장기적인 공급과잉에 처한 상황에서 시멘트 회사들은 인수·합병으로 그 돌파구를 찾았음
 - 시장을 선도하는 5개사와 경쟁하기 위해 소규모 업체들은 합병해야 할 것이며 시멘트 산업의 회복은 단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임
 - 특히 년산능력 1.6백만톤급인 Perak Hanjoong의 신공장은 2002년에 가동될 것이며 심화된 경쟁으로 인한 가격전쟁의 위험이 상존함
- YTL과 Cemex SA사는 Cima에 대한 장래의 인수 희망업체이지만 정부는 국내기업이 인수권을 획득하는데 더욱 호의적이며 국내산업이 계속해서 합병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왔음
 - 외국기업인 Lafarge는 이미 Malayan Cement의 52.6%를 차지함
 - 2002년 2월에 Malayan Cement는 Lafarge 그룹에 속한 모기업 Blue Circle사와의 결합을 반영하는 새로운 CI작업을 시작했음

- 그 합병으로 Lafarge는 아시아에 기술센터를 열게되었고, 현재 위치는 쿠알라룸푸르이며 Lafarge의 아시아 시멘트 사업 단위를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됨
- 2001년 1월 29일, 말라얀 시멘트는 SCI의 남아있는 49%의 지분마저도 인수하기로 결론냈으며 SCI는 현재 완전히 말라얀 시멘트에 속한 계열사임

□ 교역

- 말레이시아의 시멘트 생산은 주로 국내시장에서 쓰여지나 약 10% 정도가 방글라데시 및 타지역으로 수출되며 2001년 크링카 수출은 0.8백만톤이었으며 시멘트는 1.8백만톤이었음
 - Kedah 시멘트는 자동수송시스템을 통해 선적을 위한 부두와 연결되어 있으며,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수출 형태를 만들기 위해 유용하게 소득총액을 이용하기 위한 이상적인 세팅을 마친 상태임
 - Kedah 그룹은 또한 Klang, Prai, 그리고 Pasir Gudang 항구에 터미널 뿐만 아니라 7개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Tenggara 공장은 또한 항만시설 가까이에 위치해 있음
 - 주로 동말레이시아에서 이루어 지는 크링커의 교역은 1.3백만톤으로 추정되지만 시멘트 수입은 없음
- 말레이시아는 또한 수입업자들에게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외국산 시멘트를 판매할 수 있기 위한 허가를 획득할 것을 요구함

- 이는 국내 생산업체 허가권을 승인해 주기 때문에 수입의 효율적인 시장진입장벽이라 할 수 있음

□ 전 망

- 더 좋은 시절이 말레이시아 시멘트 산업 앞에 놓여있으나 상황이 더 나빠질 순 없을 것으로 보임
 - 과잉공급은 주된 고려사항이며 합병은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심화될 시장에서의 극심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함
 - 분석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정부의 경기부양책 및 재정자극 패키지 자금인 730억 링기트(미화 190억달러)를 통해 건설활동을 자극하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 전자재 회사들에 다름 아님

3. 태 국

□ 경제전반

- 태국의 경제는 최근 수년간 침체에 빠져왔으며 국내경제 발전의 주된 동력이었던 수출은 어려움에 봉착했음
 - 2000년 4.4% 성장과 비교시 2001년의 GDP는 1.5% 신장에 머물렀음
 -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2002년은 태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일본과 미국의 경제가 회복함에 따라 더 나은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함
 - 건전한 국내 금융 및 자금정책은 또한 국내 은행의 신용도를 끌어올려 2002년엔 2~3%의 경제성장이 예상됨

- 태국은 또한 경제 부흥을 위해 방콕 동쪽 30km에 위치한 신공항 건설을 비롯한 건설부문 등에 다양한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사회간접 자본 개발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음
 - 강력한 정치적 원조가 뒷받침 되는 여러 프로젝트를 보면 도시의 대규모 교통시설인 Skytrain의 확장, 지하철 공사, 국내항공 및 고속도로 건설 등을 들 수 있음

□ 생 산

- 태국의 시멘트 부문은 향상되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어 수요는 증가하기 시작하고 시멘트 가격은 90년대 말의 기록적인 낮은 가격대에서 천천히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있음
 - 5개의 주요 시멘트 회사들은 태국의 약 97%에 달하는 시장점유율과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음
 - 이들은 Siam City Cement(Holcim), TPI Polene Plc, Jalaprathan Cement(시멘트 프랑세즈, Italcementi), 그리고 Asia Cement(시멘트 프랑세즈, Italcementi)임
- 현재 시장점유율의 약 40%를 점하고 있는 Siam Cement사는 2001년, 순이익면에서 막대한 향상을 나타내 미화 127백만달러를 기록했음
 - 주력산업인 시멘트, 제지 그리고 화학산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비주력 자산을 매각하여 지금 동사는 부채를 경감시켰고 이익을 증대시켰음
 - 2002년 전체 판매량은 5~10%의 성장률이 전망됨

- 태국의 2번째 생산업체인 Siam City Cement(SCCC) 또한 좋은 시절을 겪었으나 가격전쟁의 영향을 받았음
 - 2001년엔 22.5억 바트를 기록, 2000년의 952.1백만 바트(미화 21.7 백만달러)에 비해 전년대비 2배 이상의 이익을 올렸으나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여전히 회사는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

- 외국기업의 TPI Polene 인수는 2002년엔 산업을 위한 더 나은 이익 창출에 열쇠가 됨
 - TPI는 45백만 바트(미화 1백만 달러)상당의 구조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파트너를 찾기 위한 조사를 행했음
 - 수많은 조사와 검토 끝에 Cemex에 의한 입찰은 채권자들에 의해 거절당했으며 Siam City Cement사(Holcim이 지분의 30% 보유)가 지금 유리한 단계에 있음
 - SCC와 TPI간의 연계는 두 회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임
 - 만약 SCC가 TPI를 통제할 수 있는 지분을 획득한다면 국내 시멘트 부문은 Siam Cement와 Holcim, 주된 두 개의 업체들에 의해 대체될 것이며, 시장의 약 80%를 점하게 됨
 - 결과적으로 시멘트 가격은 2002년 말에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

- TPI에 대한 입찰이 뜻하지 않은 장애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시멕스는 Saraburi Cement사의 지분을 Cemex Asia Holdings를 통해서 미화 73 백만달러를 들여 99% 인수함으로써 태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함
 - Saraburi는 방콕 북쪽 130km에 위치하고 있으며 년산능력은 70만톤으로 건식공정 공장을 운영함

□ 소비

- 현재, 시멘트 생산의 약 35%는 실제로 태국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메릴린치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까지 국내수요가 태국의 총 생산 능력의 40%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수요가 가까운 시일내에 향상이 기대됨
 - 수요는 한 동안은 위기 이전의 수준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회간접자본 건설 및 주택건설계획의 증가는 국내수요를 약 2~6%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됨
 - 2001년, 국내 판매는 전년대비 5.7% 성장한 19.1백만톤을 기록함

□ 가 격

- 태국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위험스런 가격전쟁의 와중에도 훌륭한 2001년을 보냈으며 모든 회사가 10월, 11월 사이에 약 20~30%까지 가격을 인하하면서 판매 목표량을 충족시키고자 했음
 - 생산업체들 사이의 마진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정으로 2002년들어 시멘트 가격은 다소 안정됨
 - Siam City Cement와 Siam Cement는 일단 가격이 완전히 회복세로 돌아서면 그러한 높은 수익으로부터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임

□ 교 역

- 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멘트 수출국으로 수출 목적국은 북미주(40%), ASEAN(23%), 아프리카(14%), 그리고 남아시아(10%) 등임
 - 이웃한 ASEAN 국가들로 행해지는 수출물량 비중
 - 미얀마 23%

- 싱가포르 22%
- 베트남 7%
- 말레이시아 15%
- 브루나이 8%
- 캄보디아 19%
- 라오스 66%

- 가동률의 29%는 수출에 의해 메꾸어 지며 이들 수출에 대한 의존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
 - 생산자들은 현금이익이 남기 때문에 크링카와 시멘트를 기꺼이 수출하고자하며 여전히 더 높은 수출볼륨에 대한 여지가 있음
 - 그러나, 수출물량은 지역 및 세계적인 수요에 달려있으며 이는 단기에 증가할 것 같지 않다.

□ 전 망

- 비록 국내 소비가 낮고 수출 수준은 증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태국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지속적으로 그들의 이익적인 면에서 최근의 회복세를 누리고 있음
 - 메릴린치 보고서에 따르면 한동안 위기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국내 수요는 GDP 성장과 함께 성장할 것으로 보임
- 신공장의 건설이 고려되고 있으며 TPI가 생산능력을 9백만톤에서 12.5백만톤으로 늘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
 - 태국 건설회사인 RNC와 중국에 기반을 둔 Shenyang Heavy Machinery Group 사이의 제휴업체로서 새로운 진입업체인 RNC는

Saraburi 지방에 새로운 공장에 관해 50억 바트(미화 100백만달러) 상당의 자금을 투입하기를 원함

- 신공장은 향후 2년내에 생산능력 30만톤급의 생산을 계획

- 이 모든 것에서, 분석가들은 2002년엔 'U'자 형태의 산업내 변화를 예상하고 있으며 상반기는 약하겠지만 2002년 중반에 가격전쟁이 막을 내리면서 하반기엔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함

4. 인도네시아

□ 경제전반

- 인도네시아 경제는 경제위기 이후 여전히 곤경에 처해왔으며, 지금 미국에서 발생한 9.11테러로 인해 특별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
 - 잇따른 세계 경제의 침체중에 인도네시아는 당초 예상했던 2002년 5%의 성장 목표를 성취할 것 같지 않음
 - 2001년,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2000년의 회복 이후 이미 침체를 경험해 왔으나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침체에 저항할 수 있었고 약 3.5%의 성장을 이루었음
 - 2001년의 GDP는 2000년의 4.8% 성장에 비해 떨어졌으나 예상 평균(3.01%)보다는 우위에 있었음
 - 더 강력한 이익이 2002년에 예상되지만 그러한 향상이 1998년 GDP의 엄청난 손실을 보상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움
 - 압둘라함 와히드 정부 하의 기간과 비교해 볼 때 비록 물리적인

안정은 더 이상 걱정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카르타의 테러리스트 활동에 따른 걱정이 있음

- 회복하기 위해서 국내 수요는 인도네시아 시장 및 소비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증가되어야만 함

□ 생 산

- 인도네시아는 시멘트의 과잉생산을 경험하고 있으며 따라서 수출에 신경을 쓰고 있음
 - 1997년 경제위기 이전에 인도네시아의 한 회사만이 다국적 시멘트 기업에 의해 경영되고 있었음
 - 그러나 지금은 시멘트 부문의 90% 이상에 해당하는 생산능력이 다국적 기업의 영향 하에 들어갔으며 이는 최근 기업인수 및 지분보유 증가에 따른 결과로서 증가세에 있음
- South Sulawesi의 하원 의원들은 2001년 12월, 현금부족에 쪼들리는 인도네시아 중앙정부가 자금을 끌어 들이기 위해 Cemex에게 PT Semen Tonasa, PT Semen Gresik을 매각하려는 계획을 거절했음
 - 이러한 결정은 「국내 시멘트 회사인 PT Semen Padang은 지금 그 지방사람들이 소유자」라는 법령공포를 이슈화한 서부 수마트라의 입법자들에 의한 움직임을 촉발시켰음
 - 국내 정치인들은 지금 시멘스가 Semen Padang을 매입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며 정부관료들도 외국회사가 업체를 경영하는 것에 반대하고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최근에 민영화 계획에 저항했기 때문임

- Holcim은 Cibinong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분을 77%로 늘리는 것에 동의했으며 Cibinong은 자바섬에 두개의 고효율 공장을 갖고 있음
 - Holcim의 첫 번째 과제는 국내 가격을 이익이 날 수 있을 만큼 끌어 올리는 것이며 경영구조를 바꾸는 것임
 - 비록 지금 Lafarge의 보살핌 안에 있으나 Andalas는 훌륭한 생산업체를 운영하고 있음
- 독일의 Heidelberger는 말라얀 시멘트 다음으로 규모가 큰 PT Indocement Tunggal Prakarsa(2001년 초, 61.7% 차지)의 최대 지분보유량을 증가시킴

□ 소 비

- 2001년의 시멘트 소비는 22.8백만톤에 달했으며 이는 2000년의 소비와 비교시에 매우 중요한 증가임
 - 전체는 약 20.43백만톤으로 1999년엔 23.4%만이 국내수요를 차지했는데 수요의 전년대비 증가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주택마련 신용자금을 소비자에게 대출해 주었기 때문이었음
- 향후 건설에 관한 계획은 많은 량의 시멘트를 흡수하게 될 것이며 소비는 2002년엔 24.9백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3년 27.1백만톤까지 증가할 전망이고 소비 목표량은 2004년까지 30백만톤으로 전망됨

□ 교 역

- 수출은 시멘트 산업 생존을 위해 경제위기 이후 매우 필요했으나 위기 이전에 인도네시아는 타국으로부터 주로 수입을 하는 국가였음
 - 2001년 시멘트 및 크링카 수출은 8백만톤에 달했음
 - 인도네시아의 시멘트 수출은 2001년 현재 필리핀 국내 시장의 20%를 점유하여 필리핀 국내 시멘트 산업에 가장 큰 위협이 되었음

- 생산능력과 국내수요 사이의 커다란 간극은 수출에 많은 기회가 있음을 의미하며 시멘트 및 크렁카 수출은 세계 시멘트 단가의 오름세와 관련하여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

□ 전 망

- 비록 인도네시아 시멘트 산업에 대한 긍정적 조짐이 있다고 할지라도 총체적인 상황은 여전히 침체되어 있음
 - 2001년에 톤당 미화 40달러를 상회하는 시멘트 가격이 유지되었음
 - 정치적 상황은 최근 몇 년간 보다 더욱 안정적임
- 인도네시아 시멘트 산업은 차근차근 향상될 전망으로 고수익 합병 및 인수는 수요를 자극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될 것임

5. 필리핀

□ 경제전반

- 필리핀 경제는 2001년 전년대비 3.4% 증가한 건전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당초 예상 보다는 10% 이상의 성장임
 - 이러한 수치는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가장 신속적인 경제임을 보여주며 2002년에는 4~4.5%의 GDP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
- 건설분야에서의 성장은 정부에 의해 자본이 늦게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의 년평균 거의 10%의 GDP성장에 박차를 가했음
 - 건설분야는 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에 따른 이자율 급등과 투자심리의 위축으로 쇠퇴함

- 건설분야 GDP는 그 해 9.6%하락하였고 1999년엔 1.6%하락, 2000년에는 6%가 하락하였으나 2001년 9개월 누계 확정치를 보면 0.79%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

□ 생 산

- 필리핀 시멘트 산업은 시멘트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, 수입 시멘트의 공격적인 유입으로 곤경에 처해 있음
 - 아시아 경제위기 이전에 시멘트 메이저 기업들은 시멘트 시장에서 Holcim의 Alson's Cement사를 통해 단지 12%의 영향력만 행사했음
 - 위기 이후 메이저 업체들은 시멘트 부문에 미화 17억달러를 쏟아 부었으며 그 결과 지금 시멘트 시장의 90%를 장악했음
 - 필리핀에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생산능력

· Lafarge/Blue Circle	7.4백만톤
· Holcim	7.2백만톤
· Cemex	4.2백만톤
· 태평양시멘트	0.8백만톤
· 합 계	19.6백만톤
· 필리핀내의 생산능력 비중	91.6%
- 2001년 9월, Lafarge와 Blue Circle은 필리핀에서 가장 큰 시멘트 그룹이 될 필리핀 운영체의 합병을 준비하기 시작했음
 - Lafarge는 현재 Southeast Asia Cement의 지분 40%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Continental Cement Corp.의 지분을 갖고 있음

- Blue Circle은 Fortune Cement Corp., Mindanao Portland Cement Corp 그리고 Premier Cement Corp의 지주회사로서 역할을 하는 Republic Cement Corp.의 지분 28%를 보유하고 있음
- Fortune Cement는 국내 회사가 라파즈의 상표, 상호 그리고 회사 로고를 사용하기로 작년에 라파즈와 서명함에 따라 합병과정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음
- Cemex Philippines는 국내수요가 낮은 관계로 2001년 반기까지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음
 - 동사의 3개 계열사 중 Solid Cement와 APO Cement는 지속적으로 운영하지만 이 둘은 보통 생산능력의 절반에 해당함
 - Rizal의 시설은 폐쇄되었으며 시멕스가 이들3개사를 인수한 이래 동사는 모든 3개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기위해 많은 투자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손실을 초래했다.

□ 소 비

- 산업 추정치에 따르면, 2001년 시멘트 생산능력은 26.7백만톤으로 수요는 단지 12백만톤에 불과했음
- 필리핀 시멘트 협회에서 입수한 가장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2001년의 9개월 누계치 시멘트 소비는 2000년 대비 4.5%하락한 약 9백만톤의 실적을 기록함

□ 교 역

- 필리핀은 2006년까지는 과잉생산능력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000년의 수출은 대만, 싱가포르, 홍콩, 방글라데시, 캄보디아 등지로 1.3백만톤의 놀라운 실적을 올렸음
 - 필리핀은 생존하기 위해서 급증하는 수입과 싸우고 있음
 - 수입 저지노력의 일환으로 통상산업부는 수입 시멘트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국내 시멘트 업체들이 제기한 잠정관세 인상을 승인함
 - 통상산업부에 의해 승인된 부가관세는 인도네시아, 대만, 일본, 한국으로부터의 시멘트를 대상으로 도착도 기준 대당 20.60페소 (미화 0.40달러)가 부과되었음
 - 잠정관세 부과는 국내 시멘트를 대변하는 필리핀 시멘트 협회의 요청에 의한 세이프가드 조치임
 - 협회는 수입 시멘트의 보다 싼 가격에 대해 불공정 경쟁이라고 불평했음
 - 수입시멘트는 2001년 동안 200% 증가했으며 2001년 1~6월 동안 1.6백만톤의 수입시멘트가 유입되었음

□ 전 망

- 국내 생산업체들은 아마도 필리핀 시멘트 부문에서 실질적인 수익이 창출되는 수준까지 회복하려면 오랜 기다림이 필요할 것임
- 수입과다의 논쟁은 계속될 것이지만 지금 수입문제는 중단기적인 시장의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됨

자료출처 : International Cement Review 2002. 3